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 간 단합 및 화합 노력과 아시아적 가치 추구

이병조
(알파라비카자흐국립대 교수)

Ⅰ. 머리말

카자흐스탄은 소련방의 붕괴로 1991년 말에 독립한 신생독립국이다. 현재 CIS(독립국가연합)의 회원국으로 국가주도의 적극적이고 빠른 경제개발 정책과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강조로 CIS에서는 러시아에 이어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한 여정에는 한국과의 관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벤치마킹 대상이자 경제발전 롤모델 국가이기도 하다. 20여 년 간 정부 차원에서는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와 끈끈한 우호관계가 공고히 다져져 왔고, 민간 부분에서는 경제,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양국 간의 분위기는 정부 및 민간 부분에서 한국의 카자흐스탄 진출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다.[1]

카자흐스탄의 국가경쟁력과 잠재적 능력은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에서부터 가늠해 볼 수 있다. 한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세계 9위의 광활한 국토면적에 1,800만명(2018.2월 현재)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어(공용어-러시아어)를 국가언어로 하고 있다. 또한 누르술탄에 수도를 두고 있으며,[2] 정치적으로 5년 임기의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산업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산업과 철, 비금속 등 채굴 및 가공산업이며, 무엇보다 세계 9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천연가스와 석탄(8위), 아연, 텅스텐(세계 1위), 우라늄(2위), 은, 구리, 망간(세게 3위) 등 다량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국가경쟁력 중의 하나이다. 주목할 것 중의 하나는 카자흐스탄에는 130여 개의 다양한 소수민족이 공생하고 있는데,[3] 주변국 우즈베키스탄과 비교했을 때, 민족문제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종교적 상황 또한 주목할 만 한데, 카자흐스탄에는 이슬람교, 러시아 정교, 카톨릭, 개신교, 불교 등이 어우러져 있다. 하지만 이슬람교가 오랫동안 국가종교였고, 또 여전히 국가종교로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종교적 분쟁이나 갈등 또한 실 생활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

---

[1] 특히 민간 경제 부분에서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현재 알마티를 중심으로 30여 개의 중소기업들(2016년 현재 카자흐스탄 한국중소기업연합회 등록회원 기준; 미등록 회원사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100여 개에 이르고 있음)과 코트라, 삼성, LG, 현대, 한화 등 약 40개의 지상사들(2016년 현재 카자흐스탄 지·상사협의회 등록회원 기준)이 활동하며 기계, 철강, 자동차, 건설, 운송, 여행, 식품 및 외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카자흐스탄 간 경제 교류와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2] 1997 년에 수도가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되었다가 최근에(2019.3.20) 수도의 명칭이 '아스타나'에서 '누르술탄'으로 변경되었다.

[3] 2009 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민족구성은 다음과 같다: 카자흐인-63,07%, 러시아인-23,70%, 우즈벡인-2,85%, 우크라이나인-2,08%, 위구르인-1,40%, 타타르인-1,28%, 독일인-1,11%, 기타-4,51 %(고려인-0.61%로 약 11 만명)(카자흐스탄 공화국-http://www.akorda.kz/ru/republic_of_kazakhstan/kazakhstan).

다.[4] 카자흐스탄의 이러한 측면들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시점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벤치마킹 내지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의미있는 면면들이기도 하다.

1991년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체제에서 줄기차게 국가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추구해 왔다(2015년 하반기부터 원유가 하락과 텡게 가치의 폭락으로 IFM체제에 돌입하면서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나 시간이 지나면 풀릴 것으로 전망). 현재는 가장 안정적인 정치와 급성장 해나가는 경제력을 앞세워 중앙아시아 뿐만 아니라 CIS내에서도 영향력있는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5년 4월에 재집권에 성공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30, 2050국가발전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며 카자흐스탄의 발전을 위해 국가 모든 부분에서 독려해 나가고 있다. 재집권과 더불어 대통령에 의해 장관, 시장, 은행장 등 주요 자리에는 30, 40대의 '새파랗게' 젊은 인사들로 채워졌고, 경쟁력있는 국가건설을 목표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부분에 걸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나가고 있어 그 열기는 뜨겁기만 하다. 여기에 2010년 7월부터는 3국(카자흐스탄, 러시아, 백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이 가동되고 있고, 또 2012년 1월부터는 3국에 의해 형성된 통합경제블록(자유로운 상품운송, 서비스, 재정 및 인력자원 교류) 체제 하에서 참가국들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더 나은 성장 기대감을 가져다 주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카자흐스탄의 국가경쟁력은 평가 대상 61개국 중 34위를 차지하고 있다(한국 25위).[5] 이는 수치상으로는 유럽국가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보다도 높은 순위로 카자흐스탄의 국가적 성장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증표이기도 하다. 엄청난 천연자원과 카리스마 넘치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리더쉽에 힘입어 그 동안 카자흐스탄은 도약을 거듭해 왔고, 이제는 2030, 2050국가프로젝트를 앞세워 선진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민족, 다종교 국가-카자흐스탄의 이러한 '안정적인' 국가 성장의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또한 그러한 안정적인 국가적 성장의 배경이 되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그 요소들 속에는 어떤 '아시아적인 가치'가 내재되어 있을까? 필자는 오랫동안 CIS국가들을 경험해온 연구자로서 지난 수년 동안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며 바로 그러한 카자흐스탄만의 독특하고 보기드믄 현상들에 대해 주목해 왔다(비단 필자만의 궁금증은 아닐 것이다). 가령 비슷한 시기에 독립한 주변의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만 하더라도 독립 이후 걸어 온 길은 전혀 달랐다. 국가 언어가 러시아어에서 우즈벡어로 바로 바뀌었고, 종교는 러시아정교에서 이슬람교로, 러시아인에서 우즈벡인 중심으로 국가질서가 완전히 재편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인나 고려인 등 소수민족의 주류사회 진출에 제약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상당수가 우즈베키스탄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대조적인 국가적 상황에 주목하며, 약 30년(1990.4월, 카자흐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선출 시점부터)에 가까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정치체제, 특히 '카자흐스탄 민족회의'(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를 중심으로 민족 간 단합과 화합, 상생을 강조해 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민족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 관련 정부사이트와 민족회의 보고자료들이 주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보다 자세한 분석 결과들은 다음 분문들에서 다루기로 한다).

이러한 주제연구가 의미있는 이유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통치철학(국정철학)이 거의 30년

---

[4] 카자흐스탄의 종교적 분포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슬람교 70.2%, 기독교 26%(러시아 정교 23.9%, 기타 기독교 종파 2.3%)(카자흐스탄 공화국- http://www.akorda.kz/ru/republic_of_kazakhstan/kazakhstan).

[5] 국가경쟁력(https://www.yna.co.kr/view/AKR20150527204600002).

에 가까운 집권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에 어떠한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간 단합 및 화합을 위한 노력과 민족정책, 국정철학 속에 담겨진 아시아적인 요소들이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사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에도 작게 나마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논의를 전개를 위해 제I장에 이어, 제II장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짧은 역사(독립 이전)와 정치-행정 체제(독립 이후)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 간 단합 및 화합을 위한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제III장에서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와 민족정책을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 간 단합 및 화합을 위한 노력, 그리고 아시적인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 제IV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해 볼 것이다.

Ⅱ. 민족 간 단합 및 화합을 위한 노력: 역사와 정치-행정 체제

1. 카자흐스탄의 정치-역사적 상황(독립 이전)

카자흐스탄이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명함을 내밀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소련방 붕괴에 이은 독립(1991.12.16) 이후 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으로, 19세기 중반부터는 제정러시아와 이후 소련방의 지배를 받으며 오랜 동안 역사의 그늘에 가려진 채로 있어왔다. 그런 관계로 신생독립국 카자흐스탄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 전개에 앞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약간의 사전 이해가 필요해 보이며, 주마간산식으로라도 카자흐스탄의 지난 세기의 정치-역사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카자흐스탄의 고대-중세 시기는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 발굴되는 유물들로 미루어 BC 1,500-1,000년 경 현재의 카자흐스탄에 청동기 초기 문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BC 500년경 현재의 남부 카자흐스탄에 사카(Saka) 부족이 알타이산과 우크라이나에 이르는 방대한 스텝지역에 거주하며 스키타이 문화의 일부를 이루었다(카자흐스탄 최고의 고고학적 발굴(알마티 인근)로 일컬어 지고 있는 황금옷전사(Golden Man)를 남긴 부족이며, 현재 카자흐스탄의 국가 상징 임). 이후 BC 200년경에는 중국 북부로부터 온 훈족(Huns; 흉노)이 현재의 동부 카자흐스탄을 장악했다가 이후 훈족이 서유럽으로 진출해 나갔고, 서기 550-750년에 걸쳐서는 몽고와 중국 북부로부터 투르크족이 현재의 카자흐스탄 남부로 이주해와 만주로부터 카자흐스탄 남부에 이르는 코크 투르크 제국을 구성하기도 했었다.

1218-1221년경 몽고 징키스칸의 카자흐스탄 동남부를 비롯한 카자흐스탄 전역 석권은 카자흐 민족의 민족국가 형성의 역사적 계기가 었다. 당시 카자흐스탄의 영토는 골든 호르드(Golden Horde), 화이트 호르드(White Horde), 모굴리스탄(Mogulistan)으로 분리 통치되었고, 15세기 초에 이르러 카자흐왕국(Kazakh Khanate, 카자흐 카나테)가 화이트 호르드에서 분리되면서 카자흐민족의 민족국가 형성을 위한 기반이 비로소 마련되었다. 카자흐왕국은 대호르드(Great Horde; 발하쉬호수 남부지역), 중호르드(Middle Horde; 중부), 소호르다(Little Horde; 서부)로 분열되었고, 호족들에 의해 통치가 되었다. 이 3개의 호르다는 카자흐스탄 호족들의 출신배경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호족들은 이후 300여 년에 걸쳐 3개 호르다에 병합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은 봉건영주와 농노

로 구성된 봉건국가로 18세기까지 이어져 나갔다.

이후 카자흐스탄은 제정러시아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고, 19세기 중반에 마침에 합병되기에 이르렀다. 봉건제후들 간의 전쟁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된 카자흐왕국의 3개 호르다는 18세기 중엽 준가르(Dzungar)왕국[6]의 침공으로 대재난의 시대를 맞이했다. 결국 1731년 제정러시아에 보호를 요청하면서 러시아로의 합병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제정러시아는 국경지역에 요새와 오렌부르크 등 소도시 건설을 시작하며 카자흐스탄 남부로 영향력 확대시켜나갔고, 19세기 초 카자흐스탄 북부와 중부에 러시아식 8개 행정구역이 출현하는 등 제정러시아의 식민화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19세기 초 중오르다, 소오르다에 대한 직할통치가 시작되었고, 1860년대 대오르다가 러시아에 편입되면서 카자흐스탄은 제정러시아에 완전히 합병되고 말았다.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인 1920년에 카자흐스탄은 키르기즈자치공화국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후 얼마 안있어 카자흐소비에트사회주의자치공화국(1925.4)으로 승격되었고,[7] 다시 소련 구성공화국의 하나로 재승격이 되었다(1936.12). 1950년대 말 흐루쉬쵸프 시기에 추진된 처녀지(Virgin Land) 개간정책으로 카자흐스탄 북부에 약 80만명에 이르는 러시아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식민화가 시작되었다(1960년 초, 전체 930만 카자흐스탄 인구 중 러시아인이 43%, 카자흐인이 29%라는 기형적인 민족구성이 초래됨). 소련공산당은 샤야흐메토프(Zhumabay Shayakhmetov) 및 쿠나예프(Dinmukhamed Konayev) 등 카자흐인을 카자흐스탄 공산당 서기장으로 임명하는 등 카자흐스탄에 대한 일부 배려가 있었으나 실권은 모스크바에서 행사했다.[8] 소련시기 소련중앙정부는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를 핵실험장으로 이용하고, 바이코누르에 우주선 발사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시켰고, 이는 카자흐스탄인들의 불만으로 표출되기도 했다.[9]

한편 1980년대 중반 고르바쵸의 등장과 개혁-개방 정책은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소련방 구성공화국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변화의 물결 속에 1989년에 나자르바예프가 카자흐사회주의공화국 공산당 제1서기장으로 선출되었고, 얼마 안있어 나자르바예프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카자흐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에 선출되었다(1990.4). 이어 '카자흐사회주의공화국'은 '카자흐스탄공화국'(현재의 카자흐스탄공화국)으로 독립을 위한 주권선언을 했고(1991.10.25), 카자흐스탄공화국(카자흐스탄)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나자르바예프를 카자흐스탄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12.1). 나자르바예프 정부는 이후 소련방으로부터의 독립선언(12.16)을 했고, 현재까지 신생독립국가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2. 카자흐스탄의 정치-행정 체제(독립 이후)

소련방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은 제일 먼저 CIS에 가입(1991.12.21)과 UN 가입(1992.3)을 통해 국제무대에 신생국가의 탄생을 알렸다. 나아가 3권분립의 정치체제 하에서 헌법을 채택하고(1993.1) 국가로서의 체계를 갖추어 나갔다. 특히 대통령 임기연장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초대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의 통치에 합법성을 부여해주었고(2000년까지 임

---

[6] 서몽골 지역의 오이라트 출신의 부족연합체이며, 17~18세기에 걸쳐 오이라트의 주도권을 잡아, 이리 지방을 본거지로 하는 마지막 유목제국을 건설했으나 결국 청제국 건륭제의 친정에 의해 멸망 당했다.

[7] 소련방의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광물산업을 중심으로 한 카자흐스탄의 산업화 및 강압적인 농업집단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1940년대 초까지 전국 농장의 97%가 집단농장화되었다.

[8] 1986년 쿠나예프가 러시아인 콜빈(Gennady Kolbin)으로 교체되자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기도 했다.

[9] 1989년에 소련 최초의 대규모 시민운동(Semipalatinsk Movement)이 결성되었고, 꾸준한 운동의 결과로 소련 중앙정부는 1989년부터 세미팔라틴스크에서 핵실험을 중지했다.

기연장),[10] 국가의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2019.3.20일부터 '누르술탄'으로 재개칭)로 이전함으로써 신생국가의 운영토대와 통치기반을 확고히 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옷을 벗어 던지고 과감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 체제로 배를 갈아탔다. 무엇보다 의회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을 위해 하원(2004.9)과 상원(2005.8)[11] 선거를 통해 양원제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의 신임을 받아나갔다. 한가지 주목할 부분은 상원 구성원 중 15명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된다는 점으로,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하원의 경우는 본 글의 주제와도 관련해서 깊은데, 전체 하원의원 중 9명이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구성원 중 영향력이 있는 9개 소수민족 대표자들이 대통령에 의해 임기5년의 하원의원으로 임명이 되고 있다.[12] 민족 간의 단합 및 화합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과 소수민족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인 김로만이 고려인을 대표하는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행정편제 및 민족별 인구분포 구성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이후 계속 언급 될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카자흐스탄의 민족별 인구분포 구성상황 속에서도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 간 단합 및 화합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

[10] 이후 5년마다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나자르바예프는 대통령에 계속해서 재선이 되었고, 2019년 3월 19일 저녁 19시(카자흐스탄 시간)에 발표된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사임을 발표함으로써 약 30년 동안 행사해 온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11] 카자흐스탄에는 총 6개의 정당이 활동하는데, 이중 누르오탄당을 포함한 5개 당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여당 기능을 하며, 나머지 1개 당이 야당 기능을 고 있다. 여당은 '민주세력거국연합'라는 5개 정당의 연합체 형태로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누르오탄당;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친정부(대통령)당, 2)통일당(단합당), 3) 인민민주애국당, 카자흐스탄 공산인민당, 전국사회민주당. 야당의 경우, 공식 야당은 1개이며 명칭은 카자흐스탄 민주당«아크졸»('밝은길' 의미))이다. 의회의 총 의석수는 156석인데, 상원(세나트)은 49석(상원의장; 토카예프 카심-조마르트 케메룰릐), 하원(마쥴리스)은 107석(하원의장; 니그마툴린 누를란 자이룰라예비치) 이다.

[12] 카자흐스탄 의회(http://www.parlam.kz/ru); 카자흐스탄 의회 (https://ru.m.wikipedia.org/wiki/%D0%9F%D0%B0%D1%80%D0%BB%D0%B0%D0%BC%D0%B5%D0%BD%D1%82_%D0%9A%D0%B0%D0%B7%D0%B0%D1%85%D1%81%D1%82%D0%B0%D0%BD%D0%B0).

(출처: 카자흐스탄 개관-https://assembly.kz/ru/obshchie-svedeniya)

우선 행정편제를 보면, 카자흐스탄의 행정편제는 현재 2 개 특별시(아스타나, 알마티)와 14 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13] 수도는 북쪽의 아크몰주에 위치해 있고, 옛수도인 알마티는 남부인 알마티주에 위치해 있다.

한편 제정러시아 시기에 마지막으로 인구조사가 있었던 1898 년 이후의 카자흐스탄의 민족별, 시기별 인구동향은 다음과 같다.

[시기별, 민족별 인구 분포 상황, 1926-2018][14]

민족/시기	1926	1939	1959	1970	1979	1989	1999	2009	2018.1.1 현재
카자흐인	58.52%	37.84%	30.02%	32.39%	36.02%	39.69%	53.40%	63.07%	67.47%
러시아인	20.57%	39.97%	42.69%	42.42%	40.80%	37.82%	29.96%	23.70%	19.76%
우즈벡인	2.09%	1.96%	1.47%	1.62%	1.79%	2.02%	2.48%	2.85%	3.18%
우크라이나인	13.88%	10.70%	8.19%	7.24%	6.12%	5.44%	3.66%	2.08%	1.53%
위구르인	1.01%	0.58%	0.64%	0.94%	1.01%	1.13%	1.41%	1.40%	1.46%
타타르인	1.29%	1.76%	2.06%	2.19%	2.13%	1.99%	1.66%	1.28%	1.11%
독일인	0.82%	1.50%	7.09%	6.53%	6.13%	5.82%	2.36%	1.11%	0.99%
터키인	-	0.01%	0.11%	0.14%	0.18%	0.30%	0.51%	0.61%	0.61%
고려인	-	**1.57%**	**0.80%**	**0.61%**	**0.63%**	**0.63%**	**0.67%**	**0.63%**	**0,60% (108,177명)**

[13] 수도인 아스타나는 2019 년 3 월 20 일부터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누르술탄'으로 변경되었다. 14 개 주는 다음과 같다: 아크몰주, 악토베주, 알마티주, 아트라우주, 동카자흐스탄주, 좜블주, 서카자흐스탄주, 카라간다주, 쿠수타나이주, 크즐오르다주, 만기스타우주, 파블로다르주, 북카자흐스탄주, 투르케스탄주.

[14] 인구조사가 있었던 1898년의 구성비율 기록은 없어 표기에서 제외했다. 카자흐스탄 인구 (https://ru.wikipedia.org/wiki/%D0%9D%D0%B0%D1%81%D0%B5%D0%BB%D0%B5%D0%BD%D0%B8%D0%B5_%D0%9A%D0%B0%D0%B7%D0%B0%D1%85%D1%81%D1%82%D0%B0%D0%BD%D0%B0).

아제르바이좐인	-	0.21%	0.41%	0.44%	0.50%	0.55%	0.52%	0.53%	0.59%
둥간인	0.14%	0.12%	0.11%	0.13%	0.15%	0.18%	0.25%	0.32%	0.39%
백러시아인	0.41%	0.51%	1.15%	1.54%	1.24%	1.11%	0.75%	0.42%	0.31%
쿠르드인		0.04%	0.07%	0.10%	0.12%	0.15%	0.22%	0.24%	0.25 %
타지크인	0.12%	0.18%	0.09%	0.06%	0.13%	0.15%	0.17%	0.23%	0.26 %
폴란드인	0.06%	0.89%	0.57%	0.48%	0.42%	0.36%	0.32%	0.21%	0.17%
기타 (체첸인, 키르기즈인 등)									
총합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체인구(명)	**6198469**	**6151102**	**9309847**	**12848573**	**14684283**	**16464464**	**14953126**	**16009597**	**18157337**

위 표에서 보면, 소련 붕괴 직전인 1989년과 2018년의 민족 구성비율을 비교했을 때, 일부 민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민족들은 1991년 소련붕괴 이후에도 인구 규모에 큰 변화가 없이 카자흐스탄에서 여전히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웃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우즈벡인, 우즈벡어 중심으로 국가의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어 고려인이나 러시아인 등 많은 소수민족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떠난 것과 지극히 대조가 되는 점이기도 하다. 위 표에서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독일인들의 경우 규모가 감소되었으나 이것이 카자흐스탄 내의 민족문제 갈등이나 차별에서 기인된 것은 아니다. 이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역사적인 모국으로 귀환했거나 주변지역으로 이주를 해나간 때문이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이웃한 우즈베키스탄에서와 달리 소수민족들이 계속 카자흐스탄에 남아있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단합과 화합을 강조해 온 카자흐스탄 정부의 우호적인 소수민족 정책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9, 1999, 2010년 현재 알마티 내 시기별, 민족별 인구 분포 현황][15]

민족/ 인구,구성비	인구(1989)	구성비	인구(1999)	구성비	인구(2010)	구성비
	1,071,927	**100,00 %**	**1,129,356**	**100,00 %**	**1,404,329**	**100,00 %**
카자흐인	255,133	23,80 %	434,397	38,46 %	717,050	51,06 %
러시아인	615,365	57,41 %	510,366	45,19 %	463,749	33,02 %
위구르인	43,351	4,04 %	60,427	5,35 %	80,529	5,73 %
고려인	**14,931**	**1,39 %**	**19,090**	**1,69 %**	**26,628**	**1,90 %**
타타르인	25,329	2,36 %	24,770	2,19 %	25,619	1,82 %
우크라이나인	42,243	3,94 %	22,835	2,02 %	17,397	1,24 %
아제르바이좐인	5,451	0,51 %	6,529	0,58 %	9,779	0,70 %
독일인	20,806	1,94 %	9,390	0,83 %	7,935	0,57 %
우즈벡인	4,684	0,44 %	4,304	0,38 %	6,853	0,49 %
둥간인	2,258	0,21 %	4,565	0,40 %	6,535	0,47 %
터키인	1,689	0,16 %	3,128	0,28 %	5,194	0,37 %

[15] 위와 같음.

키르기즈인	1,430	0,13 %	997	0,09 %	3,993	0,28 %

참고로, 위 표는 1989, 1999, 2010 년 현재 알마티 내 시기별, 민족별 인구 분포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인구대비 9 위 규모의 고려인의 경우 알마티 내 거주규모 비율(4 위)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알마티 내의 거주비율이 높은 것은 1997 년부터 수도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었으나 여전히 알마티는 수도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와 교육의 중심지로서의 환경과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국기]

카자흐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 국가체제를 수립해 나가는 첫 단계에서부터 민족 간 단합 및 화합을 강조해 나갔다. 우선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민족 간 단합과 화합에 대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이며, 국내외 국가정책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고 대내외에서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존재로 규정함과 동시에, 대통령을 "민족 간 단합과 화합의 상징이자 보증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에서 대통령은 여느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존재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기에 새겨진 문양에서도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 간 단합과 화합의 메세지를 읽을 수 있다. 단색의 하늘색 바탕은 정직과 충성, 결백을 의미함과 동시에 주요한 또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즉 투르크 문화권에서는 에로부터 하늘을 신-아버지로 여겼고, 하늘색의 깃발은 항상 아버지-조상에 대한 섬김(충성)으로 여겼다. 여기에 의미를 두고 카자흐스탄 국기는 청명한 하늘과 평화, 안녕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가(민족 간)의 단합을 의미하고 있다(나머지 상징물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한다).[16]

[카자흐스탄 국장]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국장에서도 민족 간 단합 및 화합이 강조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국장은 둥근 바퀴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삶과 영원의 상징으로 대초원의 유목민족 사이에서 특별한 영예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국장 한 가운데의 작은 둥근 원은 유목민 게르의 맨 윗부분(돔)을 의미하는 것으로, 카자흐스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들의 공동의 집이자 단일한 조국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황금말의 날개는 강하고 번영하는 국가건설에 대한 다민족 카자흐스탄 영원한 꿈을 상징하고, 상단의 5각별은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과의 협력과 우정을 위해 열려있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인들의 바램을 상징하고 있다. 나아가 국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하늘색은 맑은 하늘과 평화, 민족 간의 안녕을 의미하고 있다.[17]

---

[16] 카자흐스탄 국기(http://www.akorda.kz/ru/state_symbols/kazakhstan_flag).
[17] 위와 같음.

Ⅲ. 민족 간 단합 및 화합을 위한 노력: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와 민족정책

1. 민족회의의 형성과 체계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 간 단합 및 화합을 위한 민족정책의 핵심은 바로 카자흐스탄 민족회의(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민족회의는 1995 년 3 월 1 일에 바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발의로 조직되었다. 민족회의는 '민족적 소속에 관계없이' 문자 그대로 카자흐스탄 내 130 여개 소수민족들의 이익과 권리, 자유를 대변, 보장해주고 있는 카자흐스탄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하지하고 있다. 1992 년 제 1 차 민족포럼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민족회의는 국가의 민족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 내에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꾀하며, 민족 간 관계에서 국가 및 시민단체들의 상호협력 효과를 높이는데 주요 의미를 두고 발의가 되었었다.

[민족회의 로고]

현재 민족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이하 부의장- 2 명). 주목할 점은 헌법과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에 관한 특별법'과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법령'으로 그 지위가 공식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형성 절차와 구조, 운영기관, 조직목적과 주요과제, 활동 방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족 간 관계 관련한 국가의 민족정책 등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고, 민족정책 관련되어 법안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임무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카자흐스탄 민족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핵심 기관 중의 하나이다.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내의 가장 중심 기관은 1995 년 3 월에 설립된 민족회의 총회(Sessions of the 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이다. 1995 년 창립총회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대통령 직접적인 주관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8 년 4 월에 마지막으로 개최된 총회를 포함하여 그 동안 26 회의 총회가 진행되었다. 민족회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어 총회의 결정사항은 국가적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국가 기관 각 부처들에서 논의되고 심의에 붙여지게 되며, 최종적으로 민족회의 의장(대통령)에 의해 확인 및 승인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가장 주목할 부분 중의 하나는 민족회의 구성민족 대표들 중 총회에서 선출된 9 인에게 하원(전체 107 명)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9 명의 민족대표들을 승인, 임명할 수 있고, 이들은 하원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

민족회의의 실무기관은 민족회의 비서국(Secretariat of the Assembly of Peoples of Kazakhstan)이다. 비서국은 행정부 내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부서로 기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운영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활동을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민족회의 내 주요 조직은 다음과 같다: 민족회의 학술전문가협의회(학자 및 연구진-183 명), 민족회의 산하 민족 간 관계문제 언론인-전문가 클럽, 사회 기금«민족회의 기금», 언어교육혁신기술센터«틀다른», 민족회의 기업인협회, 민족회의 어머니협의회(전국 823 개)민족문화단체협의회(1338 개). 또한 민족회의 산하에 위구르, 우크라이나어로 88 개 초중등(11 년제) 학교가 활동하고 있으며, 108 개 학교에서는 22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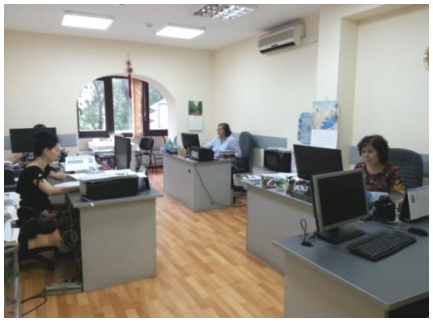
민족언어들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30 개 민족언어들을 배울 수 있는 195 개의 전문언어센터가 민족회의의 관리 하에 운영이 되고 있다.[18]

[우정의집; 크즐오르다]

이 뿐만 아니라, «우정의집»(우정회관)도 민족회의에 소속을 두고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전국 33 개). 알마티의 경우 시내에 «우정의집»이 있고, 아스타나에도 대통령 위임으로 만들어진 «평화-화합 궁전»이 있다. 이들 공간에서는 지역별로 연례정기총회나 종교회의, 각종 민족 행사들이 진행된다. 특히 민족별 대표단체들(가령, 고려인협회, 위구르인협회 등)의 본부 혹은 지부사무실들이 위치하고 있거나 관련 정부 기관의 소단위 조직도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고려극장; 알마티]

민족회의 주요 구성 조직들 배놓을 수 없는 것 중의 또 하나는 민족별로 운영되고 있는 민족극장이다. 하지만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극장을 보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카자흐인극장, 러시아인극장 외에, 4 개의 극장들(우즈벡인극장, 위구르인극장, 독일인극장, 고려인극장(고려극장) [19])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 극장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영(국립)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고려극장의 경우도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과 국립극장의 지위를 갖고 운영되고 있다).



[고려일보; 알마티]

민족별로 운영되고 있는 정보-통신(언론) 분야에 대해서도 민족회의 내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 내에는 35 개 이상의 민족신문과 잡지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중 6 개의 민족신문은 공화국신문의 지위를 갖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 하에 발간이 되고 있다. 신문과 잡지들의 경우 11 개 언어로 발간이 되고 있으며, 라디오의 경우 8 개 언어, TV 의 경우 7 개 언어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20] 카자흐스탄에서 인구규모상 9 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려인의 경우, 고려극장 외에, 정부지원을 받고 공화국신문 지위를 갖고 있는 «고려신문»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는 다민족 국가 카자흐스탄만의 독특한 민족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직 목적과 기능, 역할 등 법적으로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

[18] 2015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사업보고(https://assembly.kz/ru/deyatelnost-assamblei-naroda-kazahastana, https://assembly.kz/sites/default/files/ank_otchet_2016_new_izmenennii_m.pdf).

[19] 고려극장은 1932년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조직된 조선극장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37년 강제이주 이후 카자흐스탄에 자리를 잡은 이후 약 9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9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일보”(1923년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창간된 선봉, 강제이주 이후 레닌기치 신문의 뒤를 이어 온 신문)와 더불어 CIS고려인 사회의 보물로 여겨지고 있다. 심청전, 춘향전, 장화홍련전 등 한민족의 고전작품들을 기반으로 한 연극과 부채춤, 항아리춤, 칼춤 등의 춤공연, 노래, 무용 등을 정기적으로 선보이며 한민족의 전통과 공연예술을 지켜오는데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20]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활동(https://assembly.kz/ru/deyatelnost-assamblei-naroda-kazahastana).

하원의원 배출과 정기적인 총회, 총회의 주요 결정과 정책입안 및 반영 등 단순한 대통령 자문기구의 역할을 넘어 정치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모든 민족들에게 주류사회 진출에 대한 기회를 자유롭게 보장해 주고 있는 확실한 증표이기도 하다. 여기에 민족회의 비서국에 소속된 다양한 형태의 산하 기관들과 우정의집, 민족별 극장들과 언론사들의 존재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정책의 든든한 버팀목들이 되어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 간 단합 및 화합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 증표들이라 할 수 있다.

2. 민족회의의 주요 활동과 역할

1) 총회 활동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활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매해 정기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민족회의 총회이다. 해당 총회는 매해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와 주제의식을 갖고 열리고 있다. 본 총회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의 민족문제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전달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1995 년 창립 총회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총회 시기와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21]

회차	개최일	총회 주제
1차 창립총회	1995.3	За мир и согласие в нашем общем доме우리의 공동가정의 평화와 화합을 위하여!
2차	1995.6	Осмысление пройденного и дальнейшее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е реформирование общества/지난 사회에 대한 이해와 향후 사회의 민주적인 재구성
3차	1996.4	Общественное согласие-основ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азахстана 사회적 화합-카자흐스탄의 민주적 발전의 기초
4차	1997.6	Историческая память,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гласие и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реформы — гражданский выбор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역사적 기억, 국가적 화합 및 민주적 개혁-카자흐스탄 국민의 시민적 선택
5차	1999.1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гласие – основа стабильности и развития Казахстана 국가적 화합-카자흐스탄의 안정과 발전의 기초
6차	12.1999	В дружбе и согласии в XXI век21세기 민족 간 우정과 화합으로!
7차	12.2000	Духовное культурное развитие народа-основа укреп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азахстана 국민 정신문화 발전-카자흐스탄 국가독립 강화를 위한 기초
8차	10.2001	10 лет Независимости: мир, прогресс и общественное согласие 독립 10년: 평화, 진보 및 사회적 화합
9차	2002.11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Казахстана: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гласие, безопастность, гражданский мир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발전 전략: 국가적 화합, 안보, 시민 평화
10차	2003.12	Казахстанская модель межэтнического согласия: опыт, практика и перспективы 카자흐스탄식 민족 간 화합 모델: 경험, 실제 및 전망
11차	2005.11	Десять лет мира,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гласия и созидания 평화, 민족 간 화합과 창조의 10년
12차	2006.10	В каждом сердце-родная страна/모두의 심장에-조국!
13차	2007.8	Нам нужна консолидация общества вокруг глав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21] 위와 같음.

		приоритетов-это мир, стабильность и согласие 국가적 핵심 과제-평화, 안정, 조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
14차	2008.10	Сила страны-в единстве народа/국가의 힘은 국민의 단합 속에서!
15차	2009.10	Национальное единство-наш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выбор 국가적 통합-우리의 전략적 선택
16차	2010.10.20	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Доверие. Традиции. Транспарентность. Толерантность/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신뢰, 전통, 투명성, 관용(포용력)
17차	2011.4.18	Независимый Казахстан: 20 лет мира, согласия и созидания 카자흐스탄 독립: 평화, 화합 및 창조의 20년
18차	2012.1.16	Внеочередные выборы депутатов Мажилиса Парлам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избираемых Ассамблеей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총회에서 선출되는 의회(마쥘리스) 의원 특별 선거
19차	2012.4.27	Казахстанский путь: стабильность, единство, модернизация 카자흐스탄의 길: 안정, 단합, 현대화
20차	2013.4.24	Стратегия «Казахстан-2050»: один народ, одна страна, одна судьба «카자흐스탄-2050» 국가발전전략: 한 나라, 한 국민, 한 운명
21차	2014.4.18	Стратегия «Казахстан-2050»: культура мира, духовности и согласия «카자흐스탄-2050» 국가발전전략: 평화, 정신 및 화합의 문화
22차	2015.4.23	Мәңгілік Ел: одна страна, одна судьба/«만글릭 옐»: 한 나라, 한 운명
24차	2016.4.26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огласие. Нация единого будущего 독립, 화합, 단일한 미래의 민족!
25차	2017.4.26	Стабильность, единство, согласие-основа модернизации 안정, 단합, 화합-현대화의 기초
26차	2018.4.28	Пять социальных инициатив -платформа соци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общества 5 가지 사회적 이니셔티브-사회적 통합의 플랫폼

[민족회의 확대협의회 모습, 2019.4.2]

위의 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매해 총회에서는 민족 간의 단합 및 화합을 위한 국가적, 정부적 노력이 강하게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3 년 20 차 총회와 2014 년 21 차 총회에서는 국가발전전략 «카자흐스탄-2050»을 기치로 총회가 개최되었고, 2016 년에는 «만글릭 옐»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민족 간의 단합과 화합을 통해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 강조되기도 했다. 해가 거듭할수록 카자흐스탄 정부의 국가발전과 사회통합, 민족 간 단합과 화합을 위한 노력들이 보다 체계화 되어가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2) 민족회의 내 학술전문가협의회의를 통한 민족정책, 민족관계 및 종교관계 교육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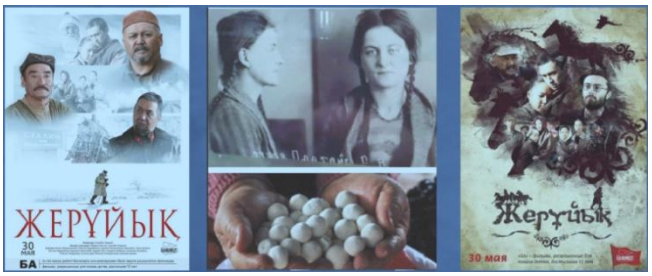
민족정책, 민족관계 및 종교관계 교육 확대사업은 정부의 높은 관심과 지원 속에 진행되고 있는 민족회의의 주요 프로젝트들 중의 하나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14 차 민족회의 총회(2008)에서 대통령 지시로 설립된 민족회의 내 학술전문가협의회(2009.1.28 일 설립)를 통해서 주도되고 있다. 이 조직에는 65 명 이상의 학자들, 즉 정치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심리학자, 언어학자, 법학자 및 이공계 분야 전문가 및 학자들, 그리고 연구소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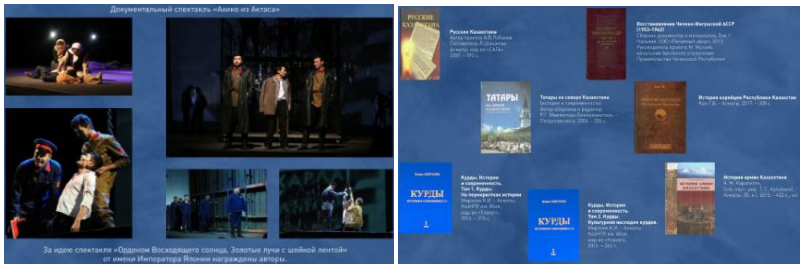
있다. 각 지역의 대학들 내에 학술전문가 그룹들이 구성이 되었고, 총 183 명(박사-125 명)이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 중이다.[22] 이 업무는 국가 지원을 받는 '카자흐스탄 대통령 산하 국가운영아카데미의 민족관계 및 종교관계 연구센터'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학술전문가협의회는 카자흐스탄 전역의 주요 대학에 '민족회의 학과'를 개설하는 것으로 프로젝트의 목표를 실현시켜 왔다. 그 결과들을 보면, 2013 년 6 월 28 일에 구밀료프 유라시아국립대학교에 제 1 호 '민족회의 학과'(경제학박사, 바쉬마코프 교수 지도)가 개설된 것을 시작으로 2016 년 현재 카자흐스탄 전역의 대학 및 컬리지에 37 개 학과가 개설되었다.[23] 이들 민족회의 학과의 개설 목적은 민족관계 분야와 관련된 인문과목들의 이론-방법론적 교수법과 기초-토대 연구방법론을 제공 및 교수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학습-양성차원에서 민족관계 문화를 형성하고, 카자흐식 사회적 화합과 국가적 통합 모델 원칙을 뿌리내리게 하며, 나아가 국가-애국주의적 이념인 «만글릭 옐»을 통한 카자흐 시민적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신생독립국 카자흐스탄의 국가적 운명과 발전은 국가적, 사회적 단합 및 통합에 달려 있으며, 그 방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족 간 민족관계와 종교관계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은 약 30 년에 걸친 나자르바예프 정부의 안정적인 국가운영에 큰 기여와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교육입국 및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과거 한국이 그래왔던 것처럼 카자흐스탄 정부도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민족 간 단합 및 화합을 통한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3) 민족문제 관련 영화 및 연극 제작, 소수민족탄압-조사연구물 출간사업[24]





그 밖에도 민족회의에서는 소비에트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던 소수민족 탄압 등과 같은 역사적 아픔을 담은 영화와 연극 등을 제작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추모하고 아픔을 나누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민족을 포함하여 소수민족의 과거 아픈 역사를 재조사 및 연구하여 많은 논문과 단행본, 책자들을 발간해 내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 출간물들은 주로 기록보존소 원자료들을

[22] 2018카자흐스탄 민족회의 학술전문가협회 사업보고 (https://assembly.kz/ru/proekty,https://assembly.kz/sites/default/files/prezentaciya_n.p._v_moskvu_na_18.07.181.pdf).
[23] 위와 같음.
[24] 2018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영화, 연극, 소수민족탄압 조사연구 사업보고 (https://assembly.kz/sites/default/files/dorozhnaya_karta_light.pdf).

이용하여 연구된 것들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고, 과거 소비에트 정권기 소수민족들이 겪어 온 아픔들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현재 민족회의 자료관에는 그 동안 발간되어 온 100 권 이상의 두꺼운 연구물들이 소장되어 있고, 현재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발간 작업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이 모든 작업들은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펼쳐나가고 있는 소수민족의 역사적 아픔에 대한 위로와 치유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고, 관용과 책임 철학이 담겨있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민족정책의 한 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기타 활동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창립 20 주년인 2015 년을 기준으로, 카자흐스탄인들을 대상으로 민족회의 주도로 수행된 다양한 형태의 학술, 물질지원, 구호사업 등의 규모를 보도로 하자.

2015 년은 '민족회의 해-평화와 화합의 해'로서 민족회의 주도로 총 30,000 회 이상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5,426 개 거주지에서 진행되었고, 여기에 8,906,022 명이 참가를 했다. 몇 가지 주요 사업들을 보면, 총 16 개의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었는데, «메가-플로젝트»를 통해 90,302 명이 393,700,000 텡게(1 달러-375 텡게)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또 «프로젝트 '믄 발라'»에 총 319,200 명의 아동들이 참여하여 이중 44,497 명이 국가언어(카자흐어)를 습득하게 되었다. 물질지원 및 구호사업 측면을 보면, 12 월 1 일 '초대대통령의날'을 전후하여 전국 4,777 개 거주지에서 6,953 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355,753 명의 카자흐스탄인들이 물질지원을 받았다(약 20 억 텡게). 이외에 전승 70 주년을 기념하여 413,327,129 텡게 규모의 약 300 회 정도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이중 355 명의 참전용사와 우수노동자들에게도 많은 물질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대통령의 특별관심사업이기도 한 '민족회의 열차 «나의 카자흐스탄» - 대통령의 민원 열차'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담당자가 기차로 전국을 돌며 민원을 해결해주는 프로젝트이다. 2015 년 한 해 동안 1,341 명이 사회, 법률, 농업 관련 자문을 받았고(이중 51 개 문제는 바로 현장에서 문제해결을 받아음), 50,000 명 이상이 의료지원을 받았다.[25]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다가가려는 대통령의 뜻이 많이 담겨있는 대민사업이라 할 수 있다.

[25] 2015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사업보고(https://assembly.kz/sites/default/files/ank_otchet_2016_new_izmenennii_m.pdf).

3. 카자흐스탄의 민족정책과 아시아적 가치 추구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프랑스 작가 모리스 베레스(Maurice Barres, 1862-1923)는 «다수민족»은 국가의 교육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이라 정의했다. 아울러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2가의 조건이 존재해야 하는데, 하나는 소수민족과 디아스포라가 다수민족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수민족이 해외에 있는 소수민족을 지지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26] 카자흐스탄은 130여 개의 다민족 국가로 모리스 바레스의 견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민족정책을 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독립국가로 자리잡아 오는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은 국가통합의 구심점(핵)으로 다수의 카자흐 민족을 설정하고, 한편으로는 민족회의를 통해 상생의 원칙을 강조하는 민족정책을 이끌며 민족 간 단합 및 화합을 이끌어 나갔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연설 모습, 제10차 민족회의, 2003]

1991년 독립 이후부터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 지붕 하에서의 국가적, 사회적 통합을 강조해나갔다. 지난 소비에트 시기의 역사에 대한 성찰과 사회의 민주적인 재구성, 나아가 평화와 진보를 추구하는 한편 국가적, 사회적 화합을 카자흐사탄의 안정과 발전의 기초로 삼았다. 이는 독립 10주년이 되는 제8차 민족회의 총회(2001)의 주요 주제(독립 10년: 평화, 진보 및 사회적 화합)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27] 이어 제10차 민족회의 총회(2003)에서는 카자흐스탄식 민족 간 화합 모델이 언급되었고,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정책이 보다 체계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28] 2006년에 개최되었던 제12차 민족회의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독립 초기에 우리는 두 가지 문제, 즉 하나는 국가를 형성하는 민족으로서 카자흐 민족의 권리 실행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별 모든 민족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해서는 안되게 하는 것이었다. 15년 동안 카자흐 민족은 진정으로 도시화가 되고, 비즈니스, 경영, 정보기술 등 많은 주요 분야에서 카자흐 민족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29]라며, 다수의 카자흐 민족과 소수민족의 권리 및 지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08년 제14차 민족회의 총회에서는 5개의 카자흐스탄식 민족 간 관용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정책이 힘을 받아 나갔다.[30] 이어 제15차(2009)와 제16차(2010) 민족회의 총회에서는 «국가화합독트린»(Doctrine of National Unity)이 채택되어 카자흐민족의 국가적 지위와 더불어 민족 간 단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근거들이 만들어 졌고, 민족 간 신뢰와 전통, 투명성, 관용(포용력)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국가화합독트린»이 완성되어 나갔다.[31]

---

[26] 민족을 통합해주는 핵(https://strategy2050.kz/ru/book/post/id/77/).
[27] 제8차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총회 비디오 자료(https://kaztube.kz/video/294065).
[28] 제10차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총회 비디오 자료(https://kaztube.kz/video/224946).
[29] 위와 같음.
[30] 민족 화합; 가장 중요한 민족의 가치-관용과 책임감, 국가를 형성하는 민족의 화합(통합) 역할; 민족, 종교, 문화, 언어적 다양성-무한한 가치; 국가-문화, 언어 발전을 위한 모든 조건을 형성.
[31] 제16차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총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연설문(https://assembly.kz/ru/20102010-vystuple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anazarbaeva-na-xvi-sessii-assamblei-naroda). 2010년에 채택된 «국가화합독트린»은 그보다 앞선 2008년 10월에 개최된 제14차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총회에서 나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시작되었다. 카흐스탄 정부는 국가형성기 중요 과제가 민족 간 관용과 사회적 화합에 기초한 사회

2013년에 4월에 개최된 제20차 민족회의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정책의 전환점을 이루는 큰 계기가 되었다. 제20차 총회(주제: «카자흐스탄-2050» 국가발전전략: 한 나라, 한 국민, 한 운명)의 주요 핵심 의제는 국가적 통합(화합)을 강조하는 중요한 원칙(구호)인 «한 나라, 한 국민»(One country - one people)이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 국가발전전략 «카자흐스탄-2050»에 반영되어 있는 주요 민족정책의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국가 통일(화합) 구호는 2010년의 «국가화합독트린»(Doctrine of National Unity) 채택을 둘러싼 이념 논의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 나라, 한 국민» 원칙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조건들을 강조하고 있다:[32] 1)화합과 국가운명에 대한 책임, 권리와 기회의 평등에 기초하는 신생독립국 카자흐스탄을 위한 새로운 애국심, 2)타민족의 권리침해에 대응한 민족 간 평화와 동의에 대한 카자흐인들의 특별한 책임, 3)카자흐어의 발전과 언어 삼위일체 이념, 4) 고유의 문화와 국가 코드의 체계화와 강화를 위한 활동의 지속, 5)지식인의 역할, 6)카자흐스탄이 이슬람공통체에 속해 있음을 고려한 세속 국가의 원칙, 7)종교적 급진주의와 극단주의의 배척. 이어진 제21차 민족회의 총회(2014)에서는 국가의 평화와 정신 강화, 민족 간 화합을 강조하는 메세지와 더불어 국가발전전략 «카자흐스탄-2050»을 완성시켰다.

[제21차 민족회의 모습,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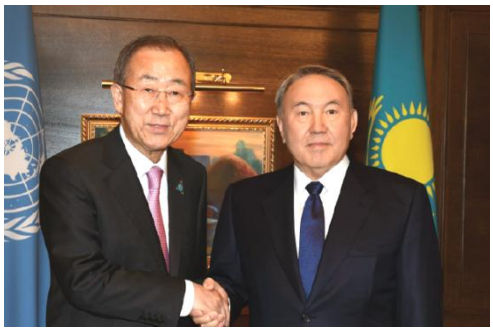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 간 단합과 화합을 위한 상생의 민족정책은 2014년 1월 17일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대국민 신년사와 제22차 민족회의 총회(2015)(주제: « 만글릭 옐»: 한 나라, 한 운명)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2014년 1월 17일자 대국민 신년사에서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가발전전략 «카자흐스탄-2050»의 굳건한 실행을 강조하며 지도적 위치에 있는 각 국가부처에 국가발전을 위한 애국적, 국가적 이상-«만글릭 옐»-을 개발 및 채택할 것을 강조했다. '만글릭 옐'의 문자적 의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역사를 지니고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 내 민족 간 단합 및 화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신생독립국으로서 카자흐스탄의 자부심과 기상, 정체성을 강조해주는 국가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국가적 이상으로 지칭하고 있는 «만글릭 옐»은 "카자흐스탄 국가발전전략 «카자흐스탄-2050»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의 이상적 토대일 뿐만 아니라, 21세기 카자흐스탄 국가형성을 위한 굳건하고 확고부동한 이상적 토대로서도 사회전반에 걸쳐 강조되어 나가고 있다.[33] 이 모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단순

적 통합이었다면, 약 20년이 지난 국가발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을 위한 공통의 가치와 원칙 체계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국가적 통합(화합)을 이루어 내는 것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보았다. 즉 카자흐스탄의 국가적 화합을 위해 개개의 국민에게 카자흐스탄이 조국이라는 공동의 운명 인식이 강조되었고, 출신 민족에 관계없이 자신을 카자흐스탄과 카자흐스탄의 미래에 일치시키는 것이 강조되었다. 나아가 카자흐스탄 정부는, 공통의 미래를 창조하지 않으면서 공통의 운명으로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 독립 획득과 더불어 카자흐스탄은 자신의 나라를 건설할 기회를 얻었고, 그 동안 국가적 단합과 연대 및 강한 정신력 덕분에 국가의 주권과 영토가 보전되고, 안보, 경제 발전 및 시민적 화합을 이루어 왔으며, 이는 공동의 결과물이다. 국민 모두는 하나의 조국의 아들과 딸이며, 카자흐스탄의 독립은 여러 세대의 꿈이고 노력과 영웅주의 및 국민 의지의 결과이다. 카자흐스탄 땅에서 이룩된 국가의 독립성과 발전은 카자흐스탄과 카자흐스탄인들의 주요한 가치이다. 카자흐스탄인들은 출신 민족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주권과 독립-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위대한 카자흐스탄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32] 제20차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총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연설문(https://assembly.kz/ru/vystuple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anazarbaeva-na-xx-sessii-assamblei-naroda-kazahstana).

[33] 그 일환으로 2016-17학년도 가을 신학기 초에 세워진 알파라비 카자흐국립대학교 아치 정문은 '만글릭 옐'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한 강조가 아닌 국가 운명을 걸고 교육과 물질지원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신과 사상 교육을 통해서까지 민족 간 국가적, 사회적 화합을 이루어나가려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카자흐스탄식 민족 간 단합과 화합 모델과 원칙은 바로 '순수한 아시아적 가치'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유엔(UN)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민족 간 평화와 화합 정책은 중앙아시아의 주변국가들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고, 해외에서도 카자흐스탄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식 사회적 화합과 국가적 단합 모델에 세계 전문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진입해 가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반드시 눈여겨 볼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벤치마킹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본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회의를 중심으로 한 상생의 민족정책은 카자흐스탄 국민들로부터도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민족회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9.7%가 민족회의의 지도자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95.3%가 민족회의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응답자의 97,6%가 단합 국민의 일원으로 여겼으며, 92.8%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 간 화합 유지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98%의 응답자가 카자흐스탄의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응답을 했다.

Ⅳ. 맺음말

이상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 간 단합 및 화합을 위한 노력들을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 소련을 구성했던 15 개 구성공화국들 중에서 지난 약 30 년 간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국가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130 여 개의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으며 서로 다른 언어, 전통, 문화, 종교가 존재함에도 정치적, 사회적 혼란없이 안정적인 국가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34] 이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 간 단합 및 화합을 위한 노력, 즉 '카자흐스탄식 성공적인 민족정책'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며, 바로 이것이 '카자흐스탄만의 아시아적 가치'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민족 간 단합 및 화합을 위한 노력, 즉 성공적인 민족정책의 노하우들, 즉 '아시아적 가치들'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다민족 상생정책에 대한 확고한 국정철학과 이행을 들 수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국가운영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민족 간 단합과 화합을 기반으로 국가적, 사회적 통합이 선행되어야 함을 굳게 인식했다. 그는 참혹한 민족분쟁이 되풀이되지 않고 민족 간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 1 차 카자흐스탄포럼(1992)에서 '카자흐스탄

[34] 카자흐스탄은 대외적으로는 핵무기 포기(1993)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 선언(2006)' 주도,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의장국 수임(2010), 제 5 회 세계전통종교지도자 총회(2015) 개최 등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세계평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민족회의' 설립을 제안했고, 제 1 차 민족회의(1995) 연설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사회적 안정과 민족 간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민족 간 평화와 화합, 그리고 다민족, 다문화 보존을 핵심목표로 삼고 국정철학을 관철시켜나가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왔다.

둘째, 카자흐스탄 민족회의를 통한 민족정책의 실현을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설립과 성공적 운영으로 민족 간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 내었고, 동시에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UN 등 국제사회에서는 카자흐스탄 민족회의가 민족 간 문제의 중재자이자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또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된 국제회의(주제: 다민족 화합의 카자흐스탄 모델: 경험과 권고)에서도 참가자들은 카자흐스탄 모델을 연구하여 다민족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데 경험 공유를 제안한 바 있다.

셋째, 다양성의 존중과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장을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헌법제정 당시 민족간 화합과 다양성 존중이라는 이념을 각종 법에 반영하여 민족, 전통, 종교, 언어 간의 있을 수 있을 갈등을 사전에 법적으로 차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민족 국가에서 국가적, 사회적 통합을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문제를 최소화 했다. 카자흐스탄 헌법에 따르면, 모든 민족은 교육, 근로, 민족언어 사용, 전통문화 회복, 사유재산 보호 등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에 따라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고 민족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넷째, 성공적인 전통문화 및 언어 육성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을 국가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았고, 출신 민족에 관계없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경쟁력 있는 국민으로 육성하고자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족 간 전통문화와 언어의 보존 및 육성, 자유로운 종교활동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가령, 카자흐스탄 정부는 '문화유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민족 간 다문화 보존 및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며 전국의 수백 개의 민족문화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의 교육 및 언어 발전을 위해 9개의 모국어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거나 민족 신문과 TV 방송 등을 허용하고 있다(예, 고려극장, 고려일보 등

위에서 제시된 4가지의 요인들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성공적인 민족정책의 노하우들이며, 동시에 신생국 카자흐스탄이 생산해 온 '카자흐스탄만의 아시아적인 가치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시아적인 가치들이 민족정책 속에서 하나의 철칙으로, 국정철학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적용됨으로써 오늘날 카자흐스탄은 성공적이고 이상적인 민족정책을 펼쳐 온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19년 3월 19일, 약 30년의 집권을 이어 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대통령직 사임을 했다. 현재 상원 의장(토카예프 카슴-조마르트)이 임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포스트 나자르바예프 시대에도 현재의 카자흐스탄의 상생의 민족정책은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대부분의 카자흐스탄인들은 예상하고 있다. 또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 이는 약 30년 간 나자르바예프 정부가 추구해 온 아시아적인 가치의 지속과도 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카자흐스탄 공화국' (http://www.akorda.kz/ru/republic_of_kazakhstan/kazakhstan)

-'국가경쟁력' (https://www.yna.co.kr/view/AKR20150527204600002).

-‘카자흐스탄 의회’ (http://www.parlam.kz/ru)

-카자흐스탄 의회
(https://ru.m.wikipedia.org/wiki/%D0%9F%D0%B0%D1%80%D0%BB%D0%B0%D0%BC%D0%B5%D0%BD%D1%82_%D0%9A%D0%B0%D0%B7%D0%B0%D1%85%D1%81%D1%82%D0%B0%D0%BD%D0%B0).

-'카자흐스탄 개관' (https://assembly.kz/ru/obshchie-svedeniya)

-카자흐스탄 인구
(https://ru.wikipedia.org/wiki/%D0%9D%D0%B0%D1%81%D0%B5%D0%BB%D0%B5%D0%BD%D0%B8%D0%B5_%D0%9A%D0%B0%D0%B7%D0%B0%D1%85%D1%81%D1%82%D0%B0%D0%BD%D0%B0).

-‘카자흐스탄 국기’ (http://www.akorda.kz/ru/state_symbols/kazakhstan_flag).

-‘2015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사업보고′ (https://assembly.kz/ru/deyatelnost-assamblei-naroda-kazahastana, https://assembly.kz/sites/default/files/ank_otchet_2016_new_izmenennii_m.pdf).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활동′ (https://assembly.kz/ru/deyatelnost-assamblei-naroda-kazahastana).

-‘2018카자흐스탄 민족회의 학술전문가협회 사업보고′
(https://assembly.kz/ru/proekty,https://assembly.kz/sites/default/files/prezentaciya_n.p._v_moskvu_na_18.07.181.pdf).

-‘2018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영화, 연극, 소수민족탄압 조사연구 사업보고′
(https://assembly.kz/sites/default/files/dorozhnaya_karta_light.pdf).

-‘2015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사업보고′
(https://assembly.kz/sites/default/files/ank_otchet_2016_new_izmenennii_m.pdf).

-‘민족을 통합해주는 핵′ (https://strategy2050.kz/ru/book/post/id/77/).

-‘제8차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총회 비디오 자료′ (https://kaztube.kz/video/294065).

-‘제10차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총회 비디오 자료′ (https://kaztube.kz/video/224946).

-‘제16차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총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연설문′ (https://assembly.kz/ru/20102010-vystuple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anazarbaeva-na-xvi-sessii-assamblei-naroda).

-‘제20차 카자흐스탄 민족회의 총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연설문′ (https://assembly.kz/ru/vystuple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anazarbaeva-na-xx-sessii-assamblei-naroda-kazahstana).